



리베르소: 플라잉 투르비옹과 듀오페이스 콘셉트의 결합

창립 185 주년을 맞이한 예거 르쿨트르는 탁월한 기술력과 미학적인 디자인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투르비옹 듀오페이스 모델은 뛰어난 두 가지 정밀 기술인 듀오페이스 콘셉트와 플라잉 투르비옹을 더해 아이코닉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델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새로운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7 이 장착된 이 독특한 타임피스 는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직 5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이번 모델은 뛰어난 워치메이킹 노하우의 전통을 보여줍니다.

섬세한 실루엣과 그랑 컴플리케이션을 결합한 익셉셔널 피스

아이코닉한 히브리드 메카니카 11 과 리베르소 트리뷰트 자이로투르비옹 모델을 계승하는 이 특별한 시계는 이상적인 비율을 통해 최고의 시계 전문가들이 추구하는 세련미를 드러냅니다. 그랑 메종의 마스터 워치메이커들은 순수한 세련미에 집중하여 연구하였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마감 기법으로 리베르소 트리뷰트 투르비옹 듀오페이스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 모델은 투르비옹의 움직이는 케이스와 밸런스 스프링을 놀라운 볼 베어링 시스템으로 고정하여 기술적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를 시계 뒷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계가 두 개의 타임존을 표시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다이얼을 보유한 시계는 매뉴팩처 워크샵에서 구현한 혁신적인 콘셉트의 정수를 드러내며, 다이얼의 회전 원리는 예거 르쿨트르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줍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의 독특한 두 개의 다이얼은 이러한 컴플리케이션을 장착할 수 있는 완벽한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께가 9.15mm 에 지나지 않는 플래티넘 케이스에 다양한 부품이 새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듀오페이스 디자인이 완전히 수정되었습니다. 두 개의 핸즈를 구동하는 하나의 무브먼트에 그랑 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것이 극복해야 할 난관이었습니다.

놀라운 시계 기능에 부응하는 섬세한 디자인

1931 년에 출시된 전설적인 리베르소 모델과 같이 아르데코 스타일을 차용한 이 새로운 타임피스는 매뉴팩처의 유산 및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오리지널 모델에 바치는 찬사를 표현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클래식한 매력을 지닌 고유한 컬렉션 코드가 완벽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앞면의 선레이 패턴의 블루 다이얼과 수공 아플리케 실버 아워 마커, 6 시 방향의 도피네 핸즈는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한 플라잉 투르비옹의 매혹적인 원무를 위해 자리를 내어줍니다. 뒷면에는 그레인 다이얼과 꼬뜨 드 제네브(Côtes de Genève) 장식이 세컨드 타임존과 2 시 방향의 낮/밤 인디케이터, 스몰 세컨드와 같은



상징적인 기능들을 섬세하게 드러냅니다. 시계는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대조적인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다이얼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딥 블루 컬러로 장식된 앞면은 대담한 품격이 느껴지며 자연스러운 메탈 효과가 특징인 뒷면은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이 돋보입니다. 양쪽 모두를 구동하는 하나의 플라이ং 투르비옹은 궁극의 정교함을 보여주며 플래티넘 케이스 내부 하단에 장착되어, 약간 휘어진 둥근 실루엣을 드러냅니다. 이 매력적인 디테일은 정통한 수집가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와 워치메이킹 역사의 위대한 순간을 장식한 아이코닉 리베르소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 시계 중 하나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1931년에 탄생한 이 모델은 많은 모조품이 있지만 뛰어난 회전 시스템을 통해 두 개의 다이얼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그 성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진귀한 오브제를 찾는 애호가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그랑 메종의 마스터 워치메이커와 아티스트, 장인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선사하는 이 모델은 눈부신 세련미에 상응하는 뛰어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복잡한 기능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인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투르비옹 듀오페이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플라이ং 투르비옹과 듀오페이스 콘셉트를 하나의 모델에 처음으로 결합한 예거 르쿨트르는 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한 워치메이킹 예술을 수집가들에게 선보이며 뛰어난 기술력과 스타일의 독창적인 만남에 찬사를 보냅니다. 뛰어난 컴플리케이션과 세련미를 눈부시게 드러내는 이 특별한 시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투르비옹 듀오페이스

크기: 45.5mm x 27.4mm

두께: 9.15mm

케이스: 플래티넘

칼리버: 847 - 매뉴얼

기능: 시간/분, 투르비옹에 탑재된 세컨드 인디케이터, 세컨드 타임 존, 낮/밤 인디케이터

다이얼: 선레이 패턴 블루(R), 그레인 실버(V)

방수: 30m

리미티드 에디션: 50 피스

레퍼런스: Q3926480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창립 이후 워치메이킹에 대한 열정과 놀라운 기술력으로 아름다운 오브제의 세계에 헌신해 왔습니다. 1833 년 창립자 앙트완 르쿨트르로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뛰어난 재능과 노하우로 기술과 예술의 모든 측면에서 워치메이킹 산업을 선도하는 컬렉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리베르소와 마스터, 랑데부, 애틀모스 등 그랑 메종이 수백년에 걸쳐 쌓아 올린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탁월함을 향한 부단한 노력의 여정에서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줍니다. 21 세기에는 수많은 전설적인 모델의 뒤를 잇는 히브리스 메카니카와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컬렉션이 탄생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진귀한 타임피스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함으로 놀라움을 안겨주는 한편, 한 지붕 아래에서 협력하는 수많은 남녀 워치메이커들의 창의적인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www.jaeger-lecoultre.com